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불바퀴가 쉬지 않고 여여하게 화해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조그마한 마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우주 전체에 직결이 돼 있다는 그 사실, 또 이 세상살이 살림살이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예요.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나 보이는 부처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통하고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용이면 바로 공식화하고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이름해서 바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이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떠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삶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문란치 않게 하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된 자리요, 밤과 낮도 초월된 자리요, 여자와 남자도 초월된 자리요, 동서도 초월된 자리입니다. 늙고 젊고도 초월된 자리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했지요.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가 없더라. 남녀노소도 없고, 마음도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채워지지 않을까 봐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서 항상 마음공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괴롭거든요, 마음이.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렇게 괴롭지 않고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큰스님 이거 봐.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없을 테고, 대신 밥 먹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죽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자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자기한테서 답답한 것도 나오고 자기한테서 고통스러운 것도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되입력을 해. 카세트에 먼저 괴로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괴롭지 않은 입력을 하란 말이야. '네가 있다면 괴롭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알아듣겠어? 그러면 앞서 입력한 게 없어져 버릴 거야. 모든 것이 다 그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스님께서 참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체와 육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체가 진정한 참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 유체는 뭐고 무체는 뭐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무체와 유체가, 무심과 유심이 다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질문자2(남) 제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거는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그 전생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또 하나의 혼이 있어 가지고 혼이 제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진정한 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혼이라는 것은 업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본래자성불이란 더하고 덜함도 없고 움죽거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능력이 광대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중생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위로는 참자기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 그것부터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둘로 보지 마십시오. 혼백이다, 무슨 생명이다, 무슨 나다, 이런 걸 다 초월하십시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거기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깐요.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분별, 망상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큰스님 말씀대로 많은 망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순간 제가 느껴본 것은 '망상이 있기에 보리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즉 한마음 자리에다 모든 것을 놓고 맡길 때, 보리가 싹트는 것이며 또한 분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망상도 바로 보리로 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생각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 마려우면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큰스님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일 것이고, 망상이 아니라고, 즉 말하자면 '망상이 없으면 아, 우리가 목석이지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으로서의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좌선이다, 입선이다, 와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할 때나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모든 걸 막론해 놓고 '그놈이 있으니까 하지. 들이고 내고 하는 놈이 그놈이다.' '그놈은 또 무엇인가?' 하지 말고 '그놈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못 보고 작년 씨가 올로 이렇게 온 거를 모르고, 작년 씨 찾다가 해 다 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3(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늘 생각해 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을 떠나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를 온 가족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공부하는 내용과, 제가 뭘 얻었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에 부닥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도반으로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경계가 크게 온다', 어떤 사람은 '경계가 작게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계가 크게 왔을 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혹 경계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그냥….

물론 조그만 것 큰 것 할 것 없이 전부 넣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가 돼 가는 것인지. 한편으로 잔잔한 바다같이 순항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도 또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큰 경계가 와야 크게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그러한 정도가 꼭 경계의 크고 작음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큰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느끼고 큰 경계가 없음을 또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가 일취월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답보 상태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여쭈어 봅니다.

큰스님 세상에 공안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듯이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 모두가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 되고,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저 내 앞에 닥친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는 그런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저의 가슴에 항상 봄이 와서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4(남) 테이프로 법문을 듣다가 의심이 나서 스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체 중생이, 또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 각각 달라도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윤회 법칙에서 본다면 육도 사생이 윤회를 할 때에, 만물 중에는 유정물과 무정물과 동물, 식물 일체가 다 포함되는데, 육도 사생으로 본다면 유정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는 세계로서의 윤회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산에서 고행하시는 중에 어느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자체의 그 이전 세계를 보니까 물속에 있는 어류 중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체 중생이 하나라고 하지만 윤회 법칙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물과 식물이 구별이 되고 또 동물이 식물 된다는 그런 윤회의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물과 식물이 구분이 되며, 동물은 여전히 동물로만 진화하는 윤회 법칙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어류가 나무가 되듯이 식물도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어느 사람이 죽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서 가다 보니깐 어느 나무에 도달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신이 되었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사생·육도·만행 하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면요, 책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너만이 일러 줄 것이다. 너만이 알 것이다.'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것은 글자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또는 지식 공부하고 경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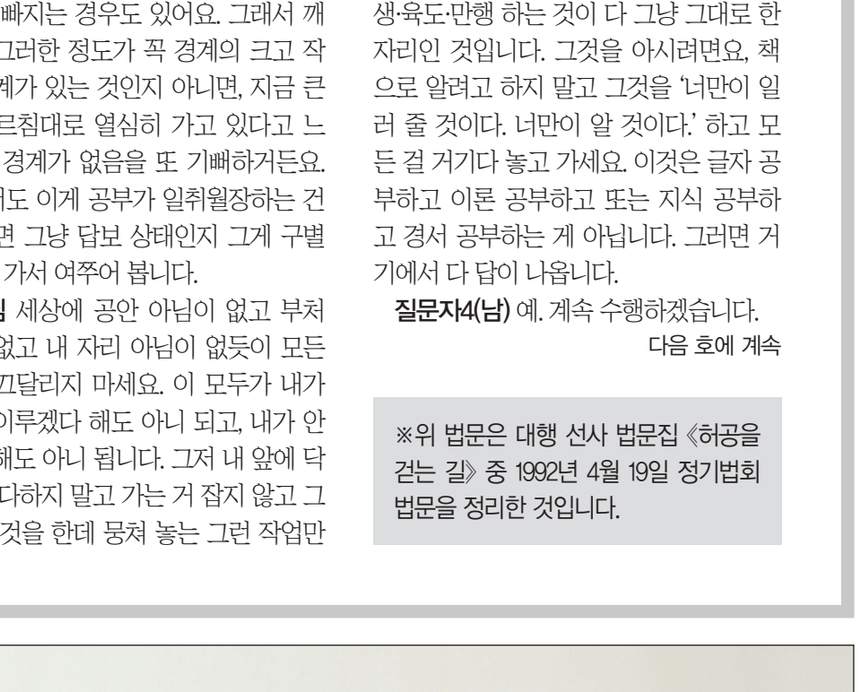
질문자4(남) 예.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